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질문: 마음이란 무엇인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마음에 대한 사유

조영란*

1. 인류의 이상향, 대동 사회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국은 예부터 이상 사회를 大同社會(대동 사회: 중국인의 사상 전통 중에서 마지막 이상 사회 혹은 인류 사회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라고 지칭하고 지향해왔다. 大同의 語源(어원)은 天下大同(천하대동)의 공자의 사상에서 나왔다. 고대 儒家(유가)인들이 선양한 “모두가 공정하다”의 이상 사회로, 중국 고대 사회의 기본 사상적 기틀이다. 또한 그는 “세상 모두는 형제이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과 같으며, 手足(수족)과 같이 정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공자는 중국인의 문화는 같은 뿌리, 조상, 근원에서 나온 것으로 본 것이다.

大의 字源 풀이는 상형자로, 팔과 다리를 벌린 사람의 정면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람의 측면을 그린 人과는 달리 크고 위대한 사람을 말한다. 同은 회의자로 한 가지, 같다, 함께 등의 뜻이 나왔다. 즉 大同은 크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공자는 大同을 ‘仁(인)’의 마지막 귀로로

* 오산대 글로벌 중국어학과 교수

보았다. 仁(인)은 형성자로, 二가 의미부이고, 人이 소리부인데, 二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한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을 바로 仁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바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맹자는 仁(인)이란 남을 어여뵈 여기는 惻隱之心(측은지심)이 바로 시작점이라 했던 것이다.

대동이란 결국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하나가 된 사회라 하겠다. 중국 고대인들은 이렇게 나 아닌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상향인 대동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마음에 대한 사유: 공자, 맹자, 순자, 장자, 육구연, 왕수인

고대 이래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속해서 논쟁이 있었다. 戰國時期(전국시기) 孟子(맹자)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강조 性善說(성선설)을 주장하였고, 荀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강조 性惡說(성악설)을 주장하였다. 孟子(맹자)나 순자가 살았던 戰國時期(전국시기)는 정치적 구심점이 부재한 가운데 제후국간의 攻伐(공벌)과 相爭(상쟁)이 빈번하여 민중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며 천하대란의 국면을 형성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탐색을 촉발했을 것이다.

동시대 활동했던 莊子(장자)는 선악이라는 인위적 분별을 넘어선 마음의 경지를 이야기 했다. 그가 모든 인위를 떠난 자연의 마음에 관심을 둔 것 또한 혼란한 전국시기의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생명을 유지

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의 반영이었으리라 생각 된다.

중국의 걸출한 사상가들이 대거 출현했던 이 시기에,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는 끝없는 전쟁이 반복되던 시대적 혼란을 극복하고 마음으로 크게 하나가 되는 대동 사회라는 이상향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시대적 과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本性(본성)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마음의 의미를 살펴보자. 本(본)은 木과 나무의 뿌리 부분을 지칭하는 지사자로 이로부터 기저나 根本(근본)의 뜻이 나왔고, 性은 形聲字(형성자)로, 心이 뜻을 나타내는 의미부이고, 生은 소리부로 사람의 본성을 말하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터 갖는 천성적인 마음이 바로 性品(성품)임을 보여준다. 性자의 뜻 부분인 心자는 상형자로 갑골문에서는 심장의 실제 모습을 그렸다.

《설문해자》에서는 심장을 음양오행 중 土(토)에 해당하는 장기라고 했다. 《설문해자》를 지은 許慎(허신)은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心을 土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思(생각할 사)나 想(생각할 상)에서처럼 사람의 생각이 머리가 아닌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心으로 구성된 한자들은 대부분 사상, 감정이나 심리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의 성품도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서양의 윤리적 전통은 어느 학파나 어느 사상가를 막론하고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 답을 모색해왔다. 공자는 仁(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인(仁)의 실현은 ‘자기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인(仁)의 실현은 결국 자신의 마음(心)에서 비롯된다 하였다. 그러나 공자의 인

간 주체 의식으로서 마음(心)은 내면적 도덕성(性)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필요는 맹자에 이르러서 性善說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心學(심학)의 출현은 맹자를 기원으로 하고, 北宋(북송)시대 程顥(정호)를 발단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南宋(남송)시대 陸九淵(육구연)이 그 기반을 세웠다. 陸九淵(육구연)은 “宇宙便是吾心, 吾心便是宇宙(우주는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바로 우주이다)”라고 하였고, ‘心即理(심즉리)’를 제창하였다. 天理(천리), 人理(인리), 物理(물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며, 사람은 이 마음과 같고, 마음이 이 理와 같다. 또한 학문을 다스리는 방법은 “發明本心(본심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며, 책을 많이 읽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陸九淵과 함께 ‘陸王心學’으로 불린 명대 중기의 사상가 王守仁(왕수인)은 心은 몸을 주재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몸이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心이라는 의미이다. 心은 몸을 주재하고, 그가 말하는 주재는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心이다. 그는 또 “사람은 천지만물의 마음이고, 心은 천지만물을 주재하니, 心이 곧 天이며, 心을 말하는 것은 천지만물을 모두 들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림 1] 공자의 모습을 담은 판화



[그림 2] 맹자(孟子), 기원전 372~289

3. 중국과 한국 현대인들의 마음에 대한 사유

중국 고대인들의 마음에 대한 사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두 지금까지 후학들에게 이어지는 위대한 사상이겠으나,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공자와 맹자가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했던 그 마음은 장자가 말한 인위를 넘어선 무위자연의 마음과 그 실체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또 나를 움직이며 하루에도 수 십 번씩 오락가락하며 혼란스러운 희로애락의 마음은 왕수인이 말하는 천지만물의 마음, 육구연이 말하는 우주마음과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이라면 왜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가? 사람은 왜 자신이 원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 또 다른 것이라면 무엇이 다르며 각각의 마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이 천지만물이고 우주라고 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아쉽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가 없다. 마음의 실체는 아직도 모호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로 거슬러 올라와서 중국은 마음(心)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사전적 정의를 한국어 마음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채이평휘이(2012)는 《신화사전》에 나타난 중국어 心과 《표준》에 나타난 한국어의 마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1〉

중국어 '心'	한국어 '마음'
1. 心臟(심장)	1.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2. 內心(내심)	2.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3. 心中, 心里(심중, 심리)	3.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4. 思想(사상)	4.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5. 精神(정신)	5.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나 심성의 바탕
6. 心緒, 心情(심서, 심정)	6.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好意의 감정
7. 思慮(사려)	7.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8. 中心, 中央(중심, 중앙)	

마음이 지닌 본연의 내적인 요소에서 생각이나 감정 따위의 외적인 요소로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반면 중국어에서 '心'의 사전적 의미는 물리적인 심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서 한국어의 마음과 동일한 추상적 의미 그리고 분위기나 사물의 중심이라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어에서 '마음'은 추상적인 인식에 근거하는데 비해, 중국어에서 心은 물리적인 대상을 가리키거나 추상적인 인식, 그리고 그 의미가 확장된 분위기, 사물의 중심 따위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마음은 또 다음과 같은 비슷한 여러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관련 어휘



[그림 3] 네이버: 마음

이처럼 현대에 이르러서도 心에 대한 인식과 정의는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이러한 모든 정의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어렵다.

중국인의 心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한국어 마음 개념은 모두 추상적이고 의미가 모호하며 인식할 수는 있으나, 실체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心의 핵을 건드리고 있지 못한 것이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학자와 사상가들이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많은 말과 글을 남겼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아도, 과연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여전히 모호하고 막연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4.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음 중 하나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마음의 해법의

로부터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이 질문을 아직 멈출 수가 없다.

특히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산업화시대 물질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나타난 인간성 상실, 정신적 황폐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물질이 아닌 정신에 더 가치를 두고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조류와 함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명상이 붐을 이루고 마음에 대한 탐구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여러 가지 명상법 가운데 최근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마음수련 명상에서는 마음에 대한 매우 새로우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마음수련 명상에서는 마음에는 진짜마음과 가짜마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진짜마음이란 사람의 본래마음,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주마음이라고 한다. 장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의 마음, 육구연이 말하는 天의 마음, 천지만물이 마음이라 한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짜마음이란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인간마음, 자기마음을 말한다. 인간마음이란 사람이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삶에 의해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 마음이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할 때 생각하는 것, 사랑, 미움, 슬픔, 기쁨, 걱정, 두려움 등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마음은 각 사람이 살아오면서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주관적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실제와는 다른 잘못된 것이며,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마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본래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든 가짜인 인간마음을 다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5. 마음의 신개념 출현: 진짜마음과 가짜마음-본성 회복의 길이 열린다

마음수련에서는 일단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마음 개념의 모호성과 혼란을 간단히 해소한다. 또한 두 가지 마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어떻게 하면 본래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명상의 놀라운 점은 실제로 인간마음을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마음이란 각 사람마다 자신의 산 삶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각자의 고정관념, 틀, 기준으로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과 시비를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이 모두 마음이 다른 것은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각자 자기의 기준과 관념과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각자가 자기중심의 마음으로 만든 분열된 마음에서는 공자가 꿈꾸던 대동 사회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다 버리고 자기중심의 마음을 넘어선 세상 중심의 마음으로 아무런 시비분별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큰마음인 우주마음이 된다면 마음은 하나가 되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져, 대동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마음수련 명상을 체험한 사람들은 각자 삶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술한 마음들이 실제로 버려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다. 자기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벗어난 만큼 자유로워지고, 의식이 커져서 자기 입장이 아닌 전체 입장에서 보기에 자신을 존재하게 해 주는 세상에 대해 진심으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저절로 상대와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된다.

본래 마음이 되면 스스로 더 채울 것이 없이 완전하기에 저절로 자기보다는 남을 더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무엇인가를 얻고, 더 많이 가짐으로써 오는 행복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이러한 정확한 개념의 출현과 본성 회복의 방법이 등장한 것은 수 천년 전부터 공자가 말한 大同社會(대동사회), 本性(본성)에 대한 규명, 각 사상가들이 연구한 心學(심학) 등 인류가 던졌던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실로 다가온다.

머지않아 인류 모두가 가짜마음을 버려서 하나가 되는, 이상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공자, 맹자 판화자료, 위키피디아, 2016년 8월 24일 검색: <https://ko.wikipedia.org>

윤지원(2012). 筍子の 수양론 연구 - 心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6(11), 189.

윤지원(2012). 莊子에 나타난 마음(心)과 몸(身)에 대한 고찰 - 对于莊子心与身范围考察. 중국학연구, 6, 189.

이경무(2010). 人, 己, 心, 欲과 공자의 인간이해. 철학논총, 59, 468.

이종열(2006). 신체화 경험에 의한 ‘마음’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20, 296.

이종우(2010). 왕수인의 心과 上帝의 주재. 양명학, 27(12), 261.

중국 ‘百度’, 2016년 8월 22일 검색: <http://www.baidu.com>.

웨이핑웨이(2012). 공간 은유의 구조에 대한 한·중 비교연구 - 어휘소 ‘마음(心)’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37).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하영삼(2014).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 3, 524, 520, 358, 407.

新華字典(1994), 北京: 商務印書館.

新華网江西頻道, ‘陸九淵’, 2016년 8월 25일 검색: <http://www.jx.xinhuanet.com>

王守仁, 吳光[外]編校(1992), 王陽明全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조영란

주소: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전화: 010-4120-0726

전자우편: lan904@hanmail.net